

도교육청, 조직개편 단행

2국 2관 11과 52담당에서 3국 1관 1단 16과 64담당으로 개편... 내달 1일 시행

정책기획과 개편·미래교육과 재구조화·교육협력과 신설·학교교육과 분리 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도교육청은 기존 2국 2관 11과 52담당에서 3국 1관 1단 16과 64담당으로 개편된다. 대변인실은 교육감 직속으로, 그린스마트추진단과 전북인권센터는 부교육감 직속으로 배치해 보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정책국 신설과 정책기획과 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북 미래학교 운영 및 SW·AI 교육 등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미래교육과를 재구조화한다.

또 교육협력·소통 기능과 학생 해외연수 확대를 위해 교육협력과와 국제교류 담당도 신설한다. 학교안전, 노사협력 및 사학 업무는 전담부서 신설로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했다.

이어 학교교육과를 중등교육과와 유치동특수교육과로 분리해 기능 중심에서 대상 중심으로 재구조화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예술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할 담당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은 전라북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과 하부조직 개편으로 수업혁신 및 미래교육 연구·개발 전담기구로의 기능이 강화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조직개편은 기존 조직의 기능 분석과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교육 체제로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교육연구원이 오는 24일까지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집합 연수 현장.

올해 중등 신규교사 연수 '맞춤형 지원'

도교육청 교육연수원, 24일까지 연수 실시... 사립학교 교사 79명도 참여

4월부터 7월까지 실무 중심으로 운영... 임용 후 교과별 전담 멘토링도 제공

전북도교육청 교육연수원(원장 문병기) 오는 24일까지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총 3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10~17일까지는 집합 연수로, 20~24일까지는 원격 연수로 이뤄진다.

올해는 사립학교 교사 79명도 참여한다. 사립학교 교사가 임용 전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수는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수업혁

신을 통한 수업전문성 신장 및 책임교육과 신규교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AI 시대, 교사의 길 그리고 삶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수업 디자인하기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권의 이해 △학생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등이 있다.

특히 올해 신규교사 대상 연수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맞춤형 지원이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10시간

에 걸쳐 실무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임용 후 교과별 전담 멘토링(총 93과정)도 제공한다. 수석교사를 포함한 100여 명의 선배 교사들이 총 10시간에 걸쳐 신규교사의 수업역량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지원한다.

문병기 원장은 "신규교사들이 존경받고 신뢰받는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연수를 설계했다"면서 "신규교사들의 짧은 폐기와 선배교사의 경험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길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화합물 반도체 관련 연구 성과 발표

전북대 김성훈 대학원생, 진공학회 젊은진공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김성훈 대학원생(물리학과 박사과정)은 최근 열린 제4회 한국진공학회 동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젊은진공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상은 우수한 논문을 구두발표한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정기 학술대회에서 김성훈 대학원생은 전이 금속 도핑을 통한 콜로이드 나노 결정의 구조 및 광 특성 제어 논문 및 관련 연구로 이



콜로이드 양자점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 제작 및 특성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주제로 국제학술지 논문 11편이 있으며, 국제 및 국제 학술회에서 우수발표상을 12회 수상한 바 있다. 김성훈 대학원생은 "젊은진공과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돼 영광스럽고, 항상 여러 방면으로 신경 써 주신 지도 교수님과 학과 교수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과학자로서의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교사를 돌봄행정업무에서 배제해야”

전북교사노조,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위한 근무시간 연장 동의”

“돌봄전담사의 6시간 근무 전환 시 돌봄업무는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제외하고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전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1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의 초등돌봄 운영 시간 연장 관련 협의체에서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을 1일 4시간에서 6시간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돌봄전담사들은 앞으로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돌봄전담사의

이관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 위원장은 “전북교사노조는 오직 교사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전북의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돌봄행정업무는 당장 배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것들을 요구한 바 있다”며 “돌봄전담사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근무시간이 2시간 연장됐고, 학부모의 돌봄수요를 반영해 돌봄 시간이 1시간 증가했으나 교사의 돌봄 업무는 전혀 경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최근 서울디지털대 등 5개 특성화고 담당 교사 및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공간정보 특성화고 실무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주비전대, 공간정보 특성화고 실무특강

담당 교사·학생 100여명 대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삼모)는 최근 서울디지털대 등 5개 특성화고 담당 교사 및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공간정보 특성화고 실무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서울디지털대, 수원공고, 여수공고, 울산기술공고, 인덕대학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심정민(공간정보특성화사업 단장), 이근상(산학협력 단장), 지정국·김영주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이번 연수는 학생들이 공간정보 관련 분야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ArcGIS

를 활용한 공간정보 DB구축, 실제 공간데이터를 활용한 중첩분석·네트워크 분석 교육 및 지도 출력 실습 실시 △QGIS 기본개념 교육, 벡터데이터 운영 및 버퍼·중첩분석을 통한 지형분석 결과 도출 △실제 드론 비행 실습 방법의 영상촬영·영상후처리·정사 영상 제작 교육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심정민 단장은 “이번 연수는 다양한 공간정보 특성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습을 통한 공간정보 기술 향상을 목표로 마련됐다”며 “공간정보 이론 및 실습 등 맞춤형 연수를 통한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여 학생들에게 공간정보 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맞출 되어줄 수 있도록”

전교조 전북, 조합원 연수

영화 ‘다음 소희 관람 후 토론’

“타인의 아픔에 연대 위해 다양한 시민교육 실천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송옥진)는 지난 11일 전주 ‘씨네 큐 상영관에서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다음 소희’를 함께 관람한 후 조합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화 ‘다음 소희’는 2017년 전주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던 고등학생의 비극적 실화를 다룬 영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영화를 관람한 참석자들은 이후 인근 커피숍으로 이동해 영화에 대한 소감과 학교현장에서 만나 내 결의 또 다른 ‘소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소희’들을 위해 교사로서, 전교조 조합원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기 위해 독서토론 등 다양한 시민교육을 실천해 갈 필요가 있다”며, “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 11일 전주 ‘씨네 큐 상영관에서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다음 소희’를 함께 관람한 후 조합원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기를 들어주고, 맞출이 돼줄 수 있는 따뜻한 교사가 되자”고 다짐했다.

노유립 조직국장은 “일터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 중대 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분노스럽다”며 “우리 제자들인 ‘다음 소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김창미 교사(이티신동초)는 “어쩌면 우리 모두 소희라는 인식 그리고 다음 소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교사로서, 전교조 일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이야기 나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교육문화회관

독서문화 활성화 협약

전주교육문화회관은 최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전주 메이카빌리지, 우리오병원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과는 동화 속 생태 인문학을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교육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다.

이어 전주 메이카빌리지(전주비전대학 산학협력단)와 함께하는 동화 속 목공예체험은 초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동화 속 △목공작품 구상 △목공작품 제도 △목공작품 제작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함양한다.

끝으로 우리오병원과 함께하는 그림책 마음산책은 △노인들의 인지능력 향상과 △그림책을 이용한 다양한 신체활동 등을 진행, 환자들의 치매 예방 및 마음치유 등에 중점을 뒀다.

이현규 관장은 “다양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독서문화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교육문화회관, 내달 6일

학생·평생교육 운영

익산교육문화회관은 3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21주간 학생중심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미래교육에 대비한 정보화 분야, AI 코딩 등 40여 개 강좌로 운영된다. 또 평생교육은 심상송승노 래교실 등 18개 강좌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자녀 특별활동 야간 교육과정과 연계해 퇴근 후 자녀와 함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야간강좌 로봇과학교실 등 4개 강좌를 개설했다.

접수는 학생교육은 15일, 평생교육은 14일부터 익산교육문화회관 누리집(http://ib.je.go.kr/mc)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평생교육 과정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하며, 온라인 접수는 14일부터 화관 누리집을 통해, 현장접수는 15일부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